나다움키우기

제18-2호
2018.10.01. 발행
발행인 : 교장 김창규
엮은이 : 교사 김영민
편집부 : 박서정, 한혜윤

P.O box 88824 Riyadh 11672 Saudi Arabia, // www.riyadhkorea.kr
전화(966)-11-248-0612 FAX (966)-11-248-0612

학교소식

2018년 병무청 호국보훈 글짓기 대회에서 5학년 한혜윤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 88회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일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가위 한마당

9월 20일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본교 강당에서는 학부모님들과 함께 성대한 한가위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청팀과 백팀 두 팀으로 나누어 스피드 퀴즈,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풍선 터트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 다채로운 경기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청팀의 우승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우승팀의 상품으로는 쌀이 전달되었으며, 준비된 송편과 식혜를 먹으로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치원 이야기

(한가위 한마당) 언니와 함께 내 차례를 기다려요.

(한가위 한마당) 윷놀이는 즐거워!

▶ 이 달의 부모교육

민족 대 명절 추석이 왔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추석에 대한 유래나, 풍속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과 추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요?

추석은?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어 말하면, 가을 저녁으로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가위는'한(크다)'과 가위(가운데)'가 합쳐진 순 우리말로 8월(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을 뜻합니다.

추석 음식

대표적인 추석음식은 '송편'이 있습니다. 설날의 대표음식은 '떡국' 이지요. 송편, 떡국과 같은 음식을 명절식이라 하는데, 명절식은 차례상에 올려 제사를 지내고 가족, 친척들과 나누어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송편과 함께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에는 다시마와 쇠고기를 섞어서 맑게 끓인'토란국'이 있습니다.

추석 전통놀이

▶ 강강술래 : 풍요를 상징하는 달에 비유되는 놀이입니다. 추석날 밤에 손과 손을 잡고'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원을 그리며 뛰어 놉니다.

▶ 씨 름 : 남자들이 힘을 자랑하는 놀이입니다. 두 사람이 샅바를 넓적다리에 걸어 서로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 가마싸움 : 매년 추석에 하는 가마를 이용한 민속놀이로 경북 의성 지방에서 시작된 놀이입니다.

▶ 소싸움 : 두 소를 마주 세워 싸움을 붙이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놀이로 경남에서 성행하는 전통놀이입니다.

1,2학년 이야기

수영

1학년 배노아

오늘은 수영장에 가는 날이다. 나는 수영갈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미리 수영복을 갈아입고 밥을 먹는다.

드디어 수영시간이다. 학교버스를 타고 수영장으로 간다. 오늘은 유난히 수영장 가는 길이 멀다. 재미있게 수영을 하였다. 수영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가르쳐 주신다. 나는 수영 수업을 계속 받는 게 힘들어 중간에 가끔 쉬곤 한다. 수영 수업을 하는 날이면 나는 도윤이 집에 자주 간다. 도윤이는 나에게 젤리도 주고, 맛있는 것도 잘 준다. 나도 도윤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야겠다.

누나

1학년 김도윤

누나는 참 좋다. 누나는 참 똑똑한 것 같다. 늘 책만 보고, 내가 물어 보는 것을 잘 가르쳐준다. 나는 언제 누나처럼 똑똑해질까? 한 번씩 나하고 안 놀아 주면 썽이 날 때도 있지만 난 누나가 좋다.

추석

1학년 최하성

추석은 재미있다. 재미있는 놀이와 맛있는 음식이 많다. 학교에서 윷놀이, 줄다리기, 스피드퀴즈, 풍선터트리기, 친구 얼굴 퀴즈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하였다. 나는 친구 얼굴 맞추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내가 우리 형 얼굴을 맞추었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쳐 주었다.

수영수업

2학년 알렉산더

학교에서 주디선생님 영어수업이 끝나고 나킬컴파운드에서 수영 수업을 했다. 수영 수업이 신나고 재미있는 것은 수영 선생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다. 나는 수영 수업이 좋다. 근데 수영 발차기를 하다가 그만 벽을 너무 세게 차서 다리를 다쳐버렸다. 너무 아쉽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수영을 할 수 없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수영

2학년 유나

학교에 와서 국어, 수학 수업을 하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나는 점심시간을 좋아한다. 엄마가 싸 준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어서이다. 우리 엄마는 정말 요리를 잘하신다. 나는 엄마가 해 준 음식이 제일 맛이 있다. 점심을 먹고 수영복을 갈아입었다. 수영은 우리 컴파운드에서 한다. 나

는 우리 컴파운드에서 수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수영을 더 잘할 수 있다. 수영 선생님이 내가 수영을 잘해서 칭찬을 해 주셨다. 집에 가서 시원한 쥬스를 마셔야 되겠다.

수영수업

2학년 최하랑

화요일은 수영수업이 들어 있는 요일이다. 나는 수영이 정말 재미있다. 수영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데, 물속에 들어가면 더욱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다. 파란 풍경과 물 속 신기함을 체험할 수 있어서 나는 수영이 좋다. 수영을 하면 신나고 몸이 건강해 진다. 수영 수업을 한 날이면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온다. 그래도 나는 수영이 참 좋다. 수영실력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나의 실력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자랑을 했더니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한가위 한마당

2학년 이주영

한가위 한마당은 정말 무섭다. 풍선터트리기는 정말 무섭다. 예방접종 주사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풍선터트리기이다. 나는 무서워서 귀를 막고 아빠 뒤에 숨었다. 나는 풍선터트리기는 자신이 없었는데 힘을 쓰는 줄다리기는 정말 자신이 있다.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단체 줄넘기도 너무 재미있었고 장애물 달리기도 재미있었다. 마지막에는 보물찾기를 하였다.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검은 봉투에는 많은 선물이 있었다. 선물을 뽑기 전에 가슴이 콩닥콩닥하였다. 내년 한가위 한마당에는 어떤 놀이들이 있을지 정말 기대된다. 나는 학교에서 매일 매일 한가위 한마당을 하면 좋겠다.

추석 한가위 마당

2학년 김태은

오늘은 학교에서 추석 한가위 마당을 하는 날이다. 오늘은 한 시간 늦게 등교하였다. 첫 번째 게임은 스피드 퀴즈이다. 어린이게임은 우리 팀이 이기고, 어른들은 청팀이 이겼다. 두 번째 게임은 윷놀이이다. 드디어 내 차례이다. 윷이 크고 무거웠다. 윷을 던졌다. 모가 나왔다.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 주었다. 모가 좋은 모양이다. 윷놀이는 재미있었다. 다음 경기는 줄다리기였다. 줄다리기는 긴장이 많이 된다. 줄을 잡아당기는 동안 내가 한복을 밟아 미끄러졌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넘어졌다. 아까운 순간이었다. 다음 경기는 풍선터트리기이다. 나는 풍선 터지는 소리가 너무 크고, 무서워 귀를 막았다. 풍선을 발목에 묶는 순간부터 가슴이 조마조마 하였다. 오늘 추석 한가위 마당은 짜릿하고 즐거웠다.

<즐거운 미술 시간!>

<김도윤>

<최하성>

<강민호>

<오서정>

<최하랑>

<서동연>

<이주영>

<유나>

<김태은>

4학년 이야기

4학년 이성호

1. 한국에서 사우디 오기

난 오늘 한국에서 사우디로 가려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짜리 버스를 탔다. 외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발 하였다. 3시간은 아주 빨리 지났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외할머니가 박스에 싸주신 음식을 한 번 더 박스에 겹쳐서 싼 다음 부쳤다. 짐을 부칠 때에는 한 1시간 정도 서 있었다. 많은 검사를 거쳐 우리는 내 사촌 누나의 외삼촌이 주신 골드라운지 사용권을 사용하였다. 편하게 보이던 것 보다 더 편했다. 골드라운지여서 사람도 많이 없었다. 그리고 갈 시간이 되자 우리는 바로 두바이로 가는 곳으로 갔다. 한국을 떠나 사우디로 가야하는 시간에는 속상했다. 비행기가 출발하고 5시간을 버텼다. 하지만 4시간은 거의 지옥 수준이었다. 기내식이 나오자 난 토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버텼다. 그리고 이제 두바이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런데 비행시간이 2시간이어서 견딜만했다. 사우디에 오니 훨씬 시원했다.

2. 한가위 한마당이 끝나고 느낀 점

한가위 한마당이 끝나고 작년과 똑같이 휴지를 받았다. 노력을 아주 많이 했는데 속상했다. 하지만 한가위 한마당은 쌀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재미있게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즐겁고 신나게 놀았다.

4학년 이지율

1. 노파 사파리를 다녀와서

노파 사파리를 다녀왔다. 예약을 하고 가서 1인당 105리얄을 내면 사파리 투어용 차량 탑승 장소로 데려다 준다. 그곳에서 과자와 커피, 물 등을 먹으면서 기다리면 사파리 투어용 오픈카를 타라고 안내해 준다. 오픈카를 타고 달리다 보면 타조, 기린, 하마, 사슴, 표범 등을 볼 수 있다. 기린과 타조는 차 안으로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사파리 투어가 끝나면 미니 동물원에 데려다 준다. 올빼미와 팔콘을 직접 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동물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2. 한가위 한마당

스피드 퀴즈가 재미있었다. 나는 코끼리외 빨래 문제를 맞췄다. 정해진 시간 동안 빨리 많이 맞춰야 하는 게임이라서 너무 긴장되었다. 줄다리기는 2:1로 청팀에게 졌는데 청팀과 거의 비슷한 실력이라 아쉬웠다. 결국 청팀이 이겼고 우리는 티슈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꼭 쌀을 받을 것이다.

바레인 여행

4학년 서동은

여름방학에 아빠가 한국에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방학을 하기 전에 바레인에 갔다.

차로 5~6시간 정도 달리니 멋진 바다가 나왔다.

차에서 내리니 공기가 너무 달랐다. 덥고 습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바다를 보니 좋았다.

도착하자마자 한국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었다.

그 다음에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엄청 좋았다. 개인 바다도 있고 수영장, 물 미끄럼틀도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놀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좋았다.

5학년 이야기

5학년 박서정

1.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난 과거로 갈 것이다. 왜냐 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던 과거의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 지 궁금하기 때문이고 또 돈이나 시장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검정고무신 같은 옛날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만화에는 콜라나 커피가 아주 귀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나 쇼파, 컴퓨터는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만약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 엄청 부자가 되어있을 것 같다.

항상 검정고무신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정말로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한가위 한마당

지난 9월 20일에 한가위 한마당이 있었다. 나는 백팀이었다. 먼저 스피드 퀴즈를 했는데 내가 문제를 냈었다. 학생끼리 하는 스피드 퀴즈는 백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았다. 줄다리기랑 릴레이랑 윷놀이는 졌지만 재미있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결과적으로 백팀이 졌다. 이번이 내가 있는 마지막 한가위 한마당이어서 이기고 싶었지만 져서 결국 휴지를 가져갔다. 그래도 즐거운 한가위 한마당이었다. 점심에는 샌드위치를 먹었다. 아주 맛있었다. 한가위 한마당이 끝나고 혜윤이

랑 놀았다. 강당에도 갔고, 미술실에도 갔고, 놀이터까지 가서 놀았다. 한국 학교에서 마지막 한가위 한마당을 즐겁게 마칠 수 있어서 좋았다.

5학년 한 혜윤

1. 워터파크에 간 날

여름방학, 우리가족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새로 생긴 워터파크를 갔다. 워터파크의 이름은 하이원 워터월드였고 새로 개장한 곳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우리가족은 입장권을 받기 위하여 번호표를 뽑았다. 우리의 번호표 숫자는 286번! 뒷 번호 숫자여서 오래 기다려야하는 번호인데 어떤 친절한 분이 자신의 번호표와 우리의 번호표를 바꾸어 주셨다. 그 번호는 84번이였다. 우리는 그 분 덕분에 빨리 입장권을 받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실내는 무척 넓었으며 깨끗하기까지도 했다. 우리는 신발을 정리하고 키를 받은 다음 키에 돈을 충전하였다. 돈을 충전한 뒤 우리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위하여 탈의실로 들어갔다.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입고 워터슈즈를 신고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까지 완벽무장을 한 채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구명조끼를 빌리기 위하여 야외로 나가 구명조끼를 빌리고 파도 풀 쪽으로 이동을 했다. 우리가 앞 번호로 입장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족은 먼저 사진을 찍고 안전요원의 호루라기 소리를 들은 후 파도 풀에 들어갔다. 그런데 워터파크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런지 벌레가 물위에 둥둥 떠다니고 너무 많아서 조심히 놀아야 했다. 놀다보니 어느덧 놀이기구가 열릴 시간이 되었다. 나는 우리가족이 제일 빨리 탈 것이라는 부푼 마음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먼저 놀이기구를 타기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어느덧 우리차례가 되었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1등으로 튜브에 탑승하였다.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듣고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마냥 재미있었지만 그 뒤로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완전히 수직으로 꺾였다. 나는 너무 빨라서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잘 버틴 덕분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였다. 그러나 도착에서 기다리는 엄마를 본 순간 무서웠던 기억이 떠올라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놀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식당에 가서 돈까스와 자장면을 시켜서 나누어 먹었다. 충분히 많이 먹고 소화를 시킨 다음 언니, 오빠는 단둘이서 놀이기구를 타러가고 엄마, 아빠, 나는 남아서 파도 풀에서 또 놀았다. 점점 시간이 흘러 하늘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아쉬움을 가득안고 워터파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식당을 발견하여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10시가 다 되어있었다. 나는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을 청하였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워터파크에서 가서 기분이 좋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놀아 지치고 힘든 하루였다.

2. 민속의 날

민속의 날에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게임을 했다. 게임의 종류는...

윷놀이, 스피드 퀴즈, 풍선터트리기, 장애물릴레이, 단체줄넘기, 보물찾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청팀이 20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 마지막 순서 장애물 릴레이! 우리 청팀이 이번 판에 이겨야만 역전을 할 수 있다. 우리 팀은 달리고, 뛰고, 구르고를 반복하여 부모님까지 이겼다. 우리 팀은 역전을 하고 소리를 꽥꽥 질렀다. 그리고 마지막 보물찾기를 했다. 나는 보물을 찾아서 상품을 뽑았다. 내가 뽑은 상품은 바로바로 황설탕이었다. 나는 커다란 실망을 안고 자리에 앉았지만 그래도 쌀을 타게 되어 너무 신났다. 게임이 끝나고 우리는 송편을 먹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5학년 남민준

1. 2학기의 시작

나는 새로운 2학기를 맞았다. 2학기가 되니 공부도 어려워지고 숙제도 많아졌다. 하지만 나는 2학기 전 5학년이 된 기분을 말하려 한다. 5학년 1학기에 나는 5학년이 되면 어떤 과목을 할까?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할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다 만족하였지만 며칠 뒤 나는 좋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숙제도 많고 영어도 힘들고 해서 항상 집에 가면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숙제하고 공부도 했다. 나는 공부할 때보다 끝내는 게 더욱 기쁘다.

1학기는 이런 식으로 버텨왔고 이젠 2학기다. 새로운 게 더 많고 재미있을 것이다. 나는 2학기에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든다. 1학기엔 재미없었어도 2학기는 더욱 더 힘차게 공부하고 재미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2학기도 파이팅!!!

2. 한가위 민속놀이

지난 9월 20일 목요일에 나는 한가위 민속놀이를 하게 되었다. 아침에 반은 신나고 반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작하고 나서 청팀인 내 팀이 이기고 또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방심을 해서 그런지 역전을 당했다. 우리 팀은 더 열심히 하고 백팀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참 치열하고도 무섭고 역전 당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거의 끝날 때 즈음 점수는 10점 차이었다. 백팀이 결국엔 역전을 한 것이다. 우리 팀은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어달리기는 우리가 두 번 연속 이겼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팀이 이겼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 마지막은 청팀이 이겼지만 백팀도 잘했고 재미있었다. 청팀이든 백팀이든 모두 다 잘한 것 같다.

2018년 병무청 호국보훈 글짓기 대회수상작

.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

리야드 한국학교 5학년 한혜윤

아빠와 함께 뉴스를 보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악수를 하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으로 토의를 하는 것처럼 동그란 식탁에 둘러앉아 심각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보고 아빠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빠는 대통령끼리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다 보니 내가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 핵무기, 판문점, 이산가족, 위원장 등등... 그러나 회담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통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이 항상 서로를 경계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남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에 가야한다고 한다. 2년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강원도에 있는 통일공원을 간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군인 아저씨들의 훈련모습이나 전쟁 중인 모습을 찍은 사진들, 다양한 군복들과 전쟁무기,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영상 등이 전시 되어 있었다.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한참을 둘러보다 맨 위로 올라가 보니 구명조끼와 폭탄을 던지는 곳이 있었다. 나는 왜 싸우는 무기만 있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패는 없을까 의아했다. 싸움을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군인 아저씨들은 전쟁 중에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패도 없이 싸우는 모습이 나에게는 확 와 닿지 않았다. 또 도대체 왜 이렇게 평화로웠던 나라는 어디가고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는지 나의 머릿속에는 궁금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궁금증은 사회시간에 풀리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독일과 유럽 때문이였다. 옛날에 독일과 유럽이 서로의 영토를 더 많이 가지려고 크게 싸웠었는데 그 싸움에 우리나라까지 휘말려 들게 되어 많은 군인 아저씨들도 목숨을 잃고 싸움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로 나누어진 분단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다. 그 나라들만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질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와 북한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보고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또 헤어져 있는 가족들도 다시 만나 서로를 안아주며 행복해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북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게임도 하며 뛰어 놀아보면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생길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군인 아저씨와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두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힘 써주세요. 통일이 되는 그날 평화로운 나라에게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